

“임을 위한 행진곡은 통곡한다” 지역민 분노

정 총리 “기념곡 지정 국론 분열 우려”에 반발 확산 보훈처장 퇴진 촉구...5·18 기념식 보이콧 검토도

현 정부의 5·18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역사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5월 광주가 뜨거워지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과 관련,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5·18 34주년 기념식 때 지정곡 배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다.

5·18의 상징이자 지난 33년간 추모곡으로 널리 불려왔으며, 5·18 민중항쟁과 연장선상에 있는 송고한 노래에 대해 총리조차 ‘국론 분열’이라는 이유를 들먹이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지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5·18 기념재단 등 5월 관련단체는 9일

‘임을 위한 행진곡은 통곡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 총리 발언은 현 정부 최초의 공식 반대 입장”이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97년~2002년까지 공식행사에서 제창됐고, 2003년~2008년엔 기념식순에 배치돼 역대 대통령들도 노래를 불렀는데, (총리)가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정부에서 모두 인정한 노래를 총리가 부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얘기다.

김후식 5·18부상자회 회장도 “지난해 6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 의원 162명의 찬성으로 공식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지 않느냐”면서 “도대체 누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5월 관련단체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5·18 민중항쟁 34주년 기념식 행사의 ‘보이콧’ 검토에 들어갔다.

송선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불편한 5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5·18 민중항쟁 34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이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조만간 대책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사정의실천연대 등 단체들도 이날 오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보훈처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훈처의 민주화 운동 역사 부정과 민주주의 퇴행이 심각한 지경”이라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및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반발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광주진보연대는 10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강력한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광주진보연대는 “이 문제는 광주 전체, 공동의 문제다. 논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지만 5·18 행사위원회는 물론 지역정치권과도 연계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해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거론하며 “정부가 국회를 무시해도 되느냐”고 따졌고 강기정 의원은 “국회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5월 관련단체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보수단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5월 관련단체 관계자는 “18일 또는 21일 국회의장 면담 일정이 잡혀 있으며 이달 말까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아파트 소방호스 노즐 도둑

서부경찰, 500개 훔친 20대 구속

광주서부경찰은 9일 광주지역 아파트를 돌며 소화전 내 소방호스 노즐 500여 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윤모(2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에 광주시 서구 유촌동 S아파트에서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내 소방호스를 준비한 칼로 절단한 뒤 노즐만 훔치는 등 모두 50차례에 걸쳐 7개 아파트 단지에서 노즐 556개(시가 723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특히, 서구 S아파트에서는 지난 31일부터 일주일에 걸쳐 아파트 전 단지를 돌며 모두 181개의 노즐을 훔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람 통행량이 많은 출근 시간에 학생복 차림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훔친 노즐을 고물상에 개당 1만~1만3000원씩 받고 판매한 뒤 생활비와 유혹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은행 유출 개인정보 2차 피해 첫 확인

보이스피싱 악용 4명 구속

유사 피해사례 주의 요망

지난해 한국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은행권에서 대량 유출된 개인정보 탓에 생긴 고객의 2차 피해라는 점에서 유사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개인정보를 이용, 저급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 총책 이모(43)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불법 수집한 개인 금융정보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대출 상환예치금 명목으로 3700여만원을 이체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경기도 일산동구에 있는 오피스텔 2채를 빌려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을 고용, 지인과 중국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7천여건의 개인정보를 모아 범행을 계획했다. 이씨가 수집한 불법 개인정보에는 지난해 한국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고객

대출정보 1912건이 포함됐다.

한국씨티은행 전산망에 저장됐던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대출 채무기록과 관련 고객 1만6000여명의 정보가 지난해 4월 대출담당 직원 박모(38)씨에 의해 외부로 무단 유출된 사실이 작년 말에 확인돼 파문이 일었다.

경찰은 당시 외부로 유출된 자료와 이씨가 이수한 씨티은행 고객 정보가 같은 형태로 작성돼 있고 내용이 100% 일치한다면 이는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사용한 고객 정보 가운데 1300여건 상당은 2013년 1월 이후 추가로 유출된 정보였다고 전했다.

경찰이 확보한 한국씨티은행 고객 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 직업, 대출날기일, 대출금액, 이자율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다. 그러나 한국씨티은행 측은 경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도 추가 유출 피해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의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한 서모(25)씨가 한국씨티은행 개인정보 최초 유출자인 박씨와 같은 대부분체에 일할 때 해당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씨를 포함해 텔레마케터 또는 인출책으로 일한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기능경기대회 집중 또 집중 광주지역 숙련 기술인의 축제 ‘2014년도 광주시기능경기대회’가 9일 시작된 가운데 전남공고에서 치러진 도자기 부문에 참가한 선수들이 몰려 성형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체벌 학생 숨진 교과서 또 학생 구타 물의

교사는 사직원 제출...감사 와중 발생 부실감사 논란

교사 체벌 뒤 학생이 숨져 논란이 인 순천의 한 학교에서 다른 교사의 학생 구타 사실이 또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학교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는 와중에도 구타사건이 발생해 부실 감사 지적도 나오고 있다.

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순천 K고교의 A교사가 1학년 B군을 교실에서 뺨과 머리를 때리고 무릎을 꿇린 채 교실바

닥에 엎드리게 하는 체벌을 가했다.

A교사는 B군이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구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지난해 8월에도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당시 2학년 C군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이 학생이 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현재 담임에서 교체되고 병가를 낸 뒤 재단에 사직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2월 3학년 학생이 자각을 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체벌을 받은 지 13시간 뒤 태권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22일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난달 27일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감사 진행 도중에 이 학교에서는

다른 교사의 학생 구타사실이 최근에 드러나 부실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이뤄졌지 이 학교의 교사 체벌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감사를 하는 도중 발생한 학생 구타 사실, 또 과거에 있었던 과도한 학생체벌도 밝혀내지 못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통상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지고, 당시에도 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것으로 한정했었다”며 “새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정렬기자 jwpark@kwangju.co.kr

딱 걸린 상습 차량탈이범...잠복 경찰 승용차 탈다가 현장서 체포



○...상습 차량탈이범이 자신을 잡기 위해 잠복 중인 경찰관의 승용차인 줄도 모르고 범행을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쇠고랑.

○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장모(40)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A학원 앞길에 주차된 광산경찰 소속 형사과 직원의 승용차를 탈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최근까지 광주·광명·당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40회에 걸쳐 1억20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한 뒤 장씨의 집과 근무지 주변 등지에서 50일간 잠복했는데, 범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차량탈이에 나섰다 경찰에 걸려.

/최홍철기자 srchoi@kwangju.co.kr

완전할인 요금제 출시 기념!

가입 축하 이벤트

★ 매일 5분만 통화하면 기본료가 완전 무료!

기본요금 완전무료

매일 5분만 통화하면 기본료가 완전 무료!		다양한 최신 피쳐폰 단말기로 더욱 저렴하게!	
<p>11,000원 (데이터 요금 별도)</p> <p>150분 이상 통화 시 기본료 비교</p>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100% 절감</p>	<p>11,000원 (데이터 요금 별도)</p> <p>150분 미만 통화 시 기본료 비교</p>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55% 절감</p>	<p>큰 LCD화면에 7가지 컬러의 LED가 반짝이는 슬림디자인</p> <p>삼성 애니콜 노리2</p>	<p>기본기에 충실한 편의 기능들과 시원한 대화면</p> <p>LG 와인샤베트</p>
<p>0원 (데이터 10M 무료)</p> <p>헬로 모바일</p>	<p>5,000원 (데이터 10M 무료)</p> <p>헬로 모바일</p>	<p>넓은커메드, 쉽고 명쾌한 실용적인 UI</p> <p>삼성 애니콜 미니멀폴더</p>	

* 해당 월 음성 통화 요금 발생 시 기본료 10,000원 할인 적용 (2년 약정시), 150분 이상 음성 통화 시 기본료 5,000원 추가 할인 적용 (2014년 12월 31일 기한 내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60만 고객의 선택! 알뜰폰 1위 헬로모바일

www.cjhellomobile.com